Ⅵ. 부록

1. 논술 전형 필답고사 문항카드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Ⅰ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생각의 전환, 깨달음, 이치의 터득, 삶의 긍정, 섣부른 판단, 생명의 존엄함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생각이 전환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나는 긴 여름날에 할 일이 없으면 번번이 가서 물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떼 지어 노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대나무 하나를 잘라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물결 사이에 낚싯줄을 드리우게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서울에 살아서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굽은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이웃 사람이 준 것을 좋게 여겨서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한 손님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하기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굽어 안으로 향하였으니, 물고기가 바늘을 삼키기 쉬우나 뱉기도 어렵지 않다. 반드시 끝을 조금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하므로, 내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또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또 두 손님이 왔으므로 내가 낚싯바늘을 보여 주고 또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니, 한 손님이 말하기를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을 눌러서 굽힐 적에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싸라기 하나를 끼울 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굽힌 곡선의 끝부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서 틀림없이 장차 내뱉게 생겼다." 하므로, 나는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뾰족한 부분을 짧게 한 다음 낚싯대를 한동안 드리웠다.
손님이 말하기를 "법(法)은 여기서 다하였지만 묘리(妙理)는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하고는 내 낚싯대를 가져다가 스스로 드리우니, 낚싯줄도 나의 낚싯줄이요 낚싯바늘도 나의 낚싯바늘이요 먹이도 나의 먹이요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였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단지 낚싯대를 잡은 손일 뿐인데도 낚싯대를 드리우자마자 물고기가 마침내 낚싯바늘을 머금고 올라와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을 다투어 올라왔다.
내가 말하기를 "묘리가 이 정도에 이른단 말인가. 이를 또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손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니, 묘리를 어찌 말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또 이른바 묘리가 아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

니, 그대가 나의 법을 지켜 아침에도 낚싯대를 드리우고 저녁에도 낚싯대를 드리워서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날짜가 쌓이고 달수가 오래되어 익히고 익혀 이루어지면 손이 우선 그 알맞음을 가늠하고 마음이 우선 앎을 터득할 것이다. 내 그대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는 이에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하기를 "손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 도를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다만 낚시질에 쓸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손님이 이미 떠난 뒤에 그 말을 기록하여 스스로 살피는 바이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는 도시에서 온 남자와 친해지며 사랑을 꿈꾸지만, 남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귀는 낌새를 보인다.

그는 집에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간 것들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무공해 채소예요."
"무공해고 뭐고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나는 당신에게 이 채소들을 갖다 주기 위해 지난봄 내내 마당을 일구어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텃밭을 일구는 동안 손에서 피가 나기도 했죠."
남자가 조소했다. 그 조소가 순간적으로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무공해 채소뿐이었어요.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심장은 격렬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네 눈에 내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 에잇, 재수 없어."
나는 남자가 내던진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나의 고추와 상추와 치커리와 가지를 수습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은 그보다 더 떨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후드득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비에 젖어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도 비에 젖어 걸어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이다. 남자다.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 두 사람이다.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긴 뒤에야 나는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알았다. 남자들이 정미소 앞에서 딱 멈추었다.
"잠깐만, 이게 뭘까?"
두 남자가 정미소 처마 밑에서 뭔가를 펼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건 고추야, 싸부딘. 상추도 있어.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어."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깐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 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남자들이 노래를 뚝 멈추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싸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정미소를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
"그럴 거야."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 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구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 드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에,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라) [등장인물] 양회기(35세):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 / 김인옥(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 최상현(39세): 인옥의 남편 / 정금숙(28세): 간호사

인옥: 선생님…….
회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오?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회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3. 출제 의도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주어진 네 제시문을 '생각의 전환'의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이 인식 전환에 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서술하고, 결론에서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59쪽)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	제시문 (라)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66쪽)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66쪽)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66쪽)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66쪽)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66쪽)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1	109-111	제시문(가)	○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308-312	제시문(나)	○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21	53-61	제시문(다)	○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126-133	제시문(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21)에 실린 남구만의 「조설(釣說)」(성백호 번역)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서술자가 낚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타인의 조언과 충고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낚시의 방법이 아니라 이른바 ’묘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이치는 단순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이를 삶과 세상의 이치에 적용할 수 있음을 깨우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 신사고, 2019)에 실린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사랑에 실패하여 상처받고 좌절감에 빠진 여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겪는 현실의 고단함과 삶의 애환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여인은 자신의 절망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21)에 실린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이 한 수리공에게 욕실공사를 맡긴 후 인부에 대한 선입견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데다가 뜻밖의 호의까지 베풀자 자신의 편협하고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20)에 실린 차범석의 「성난 기계」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의사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이후 환자 남편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기계와 같이 냉정하던 의사는 환자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계기: ’내’가 타인의 조언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함 (4점)
깨달은 것: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 (4점)
(나) 계기: ’내’가 타국에서의 고단한 삶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함 (4점)
깨달은 것: 실연의 상처와 좌절감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와 희망 (4점)
(다) 계기: ’그’가 수리공(임 씨)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 (4점)
</td><td>40</td></tr>
</table>

깨달은 것: 특정 직업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 (4점)
(라) 계기: '회기'(의사)가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함 (4점)
깨달은 것: 생명의 소중함과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것의 중요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위험성, 생명의 존엄성 등을 깨닫는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라)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나'는 타인의 충고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우친다. (나)에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상처받고 좌절한 '나'는 타국에서의 고단한 삶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절망을 딛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다)의 '그'는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꾼다. 이를 통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

인 사고방식을 뉘우친다. (라)의 회기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하여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후 그는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환자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점, 생명의 존엄성 등을 깨닫는다. (568자)

문항카드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Ⅰ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칸트, 정언명령, 직업, 인간존중, 보편성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라)의 '인옥과 회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제시문 (마)를 근거로 평가하고,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등장인물] 양회기(35세):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 / 김인옥(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 최상현(39세): 인옥의 남편 / 정금숙(28세): 간호사

인옥: 선생님·····.
회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오?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회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마) 칸트의 도덕 법칙을 표현하는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는 것이다. 칸트는 한 사람이 선택한 준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면, 도덕 법칙의 명령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또 다른 정언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의 원리에 전제된 인간 존중의 정신을 표현한 정언 명령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며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처럼 자신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한다면,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가치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로부터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중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인격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사물과 달리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준칙: 자기 자신의 행위 지침으로서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바)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사) 인간의 활동은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고, 둘째, 작업은 인공 세계를 건설하여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본연의 능력과 개성을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활동이다. 노동은 직(職)에 해당하고 행위가 바로 업(業)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활동은 동물도 하는 걱정이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사상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에 비추어 해석, 비판하는 능력, 2) 직업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출해내는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결여된 직업적 태도를 분석하고, 이어지는 두 제시문에 나타난 직업 윤리의 논지를 통합하여 주인공이 지녀야 할 자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59쪽)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td><td>제시문 (라)</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66쪽)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66쪽)</td><td>제시문 (바)</td></tr>
</table>
2.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58쪽)</td><td>제시문 (마)</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39쪽)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41쪽)</td><td>제시문 (사)</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126-133	제시문 (라)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21	137-141	제시문 (마)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328	제시문 (바)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9	82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20)에 실린 차범석의 「성난 기계」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의사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이후 환자 남편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환자를 기계적으로만 대하던 의사는 환자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의무론과 칸트주의」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해도 좋다고 기꺼이 바랄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칸트의 보편주의 정신 및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파악해야 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함민복의 시 「긍정적인 밥」의 전문이다. 이 제시문은 시적 화자가 자기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쓰는 시의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시에 귀한 가치가 있음에 감사해한다. 그리고 시를 단순한 돈이 아닌 밥, 국밥, 소금 등의 일용한 양식에 견주어 봄으로써 겸허한 만족감과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직업」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에 대한 의미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職)과 진정한 삶의 가치실현을 위한 업(業)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직업인의 윤리적, 태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 한다. <table><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tr><td>±1~25자</td><td>1점 감점</td></tr><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table>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칸트의 도덕법칙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칸트의 두 가지 정언명령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부여 (1)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칸트의 첫 번째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원리로써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타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칙이어야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제시문 (라) 속에서 나타나는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에 어긋난다. -제시문 (마)의 칸트의 정언명령을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제시문 (라)와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정언명령과 (라)에 드러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마)의 관점을 근거로 회기가 위반한 보편성 원리, 인간존중의 원리를 정확히 부여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2) (라)의 회기가 보여주는 의사로서의 문제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기가 직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1) 제시문 (바)에 나타난 것은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이다. (2) 제시문 (사)의 논지는 ‘직’ 뿐 아니라 ‘업’ 의 조건을 충족하여 직업을 통해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바)의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을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제시문 (사)의 ‘업’ 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시문 (라)의 회기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40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마)를 근거로 (라)의 회기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마)의 관점을 서술한 경우	4~7점
		제시문 (라)와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4~7점
		(마)의 관점을 근거로 (라)의 회기의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	15~20점
	②(바)와 (사)를 근거로 회기가 갖춰야 할 자세를 평가(20): 5~20 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4~7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8~14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라)의 회기에게 필요한 태도를 제시했을 경우	15~2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7. 예시 답안

(라)의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회기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올바른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의 첫 번째 정언 명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기는 인옥을 기계로 대상화하면서 사물과 같은 수단으로 치부한다. 회기가 환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목적으로, 즉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두 번째 정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의 시인은 시를 써서 얻는 수입에 아쉬워하면서도 시로 돈을 벌 수 있음에 겸허히 감사해하며, 시의 가치를 일용할 양식에 빗대어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낸다. (사)에서 '직'의 활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고, '업'의 활동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회기의 활동은 '노동'에는 해당하나 '행위'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직업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65자)

문항카드 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쾌락, 평정심, 에피쿠로스, 쾌락의 역설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의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아)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하여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자 가장 좋은 것, 즉 최고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성의 덕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성이나 지혜가 비록 그 자체로 쾌락은 아니지만, 진정한 쾌락에 이르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혜를 통해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학파가 지향한 쾌락주의의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를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불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통해 고통과 쾌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건전한 추론으로써 쾌락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절제, 정의, 우정 등의 덕을 쌓는 삶을 통해 쾌락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의 부정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세속의 삶을 떠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쾌락 기계(pleasure machine)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순수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잡한 기계 하나를 발명했다. 이 기계에는 사람의 대뇌 피질 영역과 뇌의 다른 부분에 전류를 보내는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우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한다. 당신은 그런 기계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차) 쾌락은 망해 가는 연속이다.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한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쾌락이 겹쳐 올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쾌락이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쾌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행복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경험이다.

3. 출제 의도

-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내용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과 '쾌락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각각 근거를 찾아 차이점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111쪽)	제시문 (아)
	성취기준 2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탐구하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111쪽)	제시문 (자)
	성취기준 3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115쪽)	제시문 (차)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21	113-115	제시문 (아)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19	제시문 (자)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9	119	제시문 (차)	○

5. 문항 해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윤리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학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진정한 쾌락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고통과 쾌락의 원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학파는 진정한 쾌락을 얻기 위해 복잡한 세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에서 절제, 우정, 정의를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20)에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의미」의 일부이다. 이 지문의 원전은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저술한 『윤리학』이다. 이 제시문은 인간의 신체에 생물학적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쾌락기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쾌락을 조작하는 것이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21)에 「쾌락의 역설: 쾌락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의 일부이다. 이 지문의 원전은 브래들리가 저술한 『윤리적 학습』이다. 이 제시문은 쾌락에 의한 만족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쾌락을 갈구하게 되므로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는 쾌락을 통해 반드시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와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찾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제시문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자)의 쾌락기계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2) 제시문 (아)와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하
</td><td>20</td></tr>
</table>

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제시문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각각 찾아 명확히 설명 (10점)	(아) 또는 (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명확히 설명	3-6점
		(아)와 (자) 모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명확히 설명	7-10점
	②(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히 설명(10점)	(아) 또는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명확히 설명	3-6점
		(아)와 (차) 모두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명확히 설명	7-10점

7. 예시 답안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자)의 쾌락기계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편, (아)와 (차)를 비교하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동일하다면, (차)에서 둘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420자)

문항카드 4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Ⅱ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선물, 감정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상대방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당시 일곱 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수지는 여동생(오목)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손에 쥐여주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친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목이와 다시 만난 수지는 죄책감을 느껴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져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선 오목이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이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 줘. 일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 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 줄 자격도 없어. 아아, 내 죄를 네가 안다면……."
"근데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두 내외가 다 고아 아뉴?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 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놓여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걸 느낀 거야.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 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 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 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아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 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표주박이었다. 은행알만 하고 청홍의 칠보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노리개였다.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꺾고 그것을 받았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 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꺾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동기간(同氣間): 형제자매 사이.
*공구(恐懼)하다: 몹시 두렵다.

(나)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 식품'이라는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백 퍼센트'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해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 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부쳤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두 달 전 일이었다. (중략)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 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사 인용 식탁을 놨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사 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튄 거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우의 보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 영우가 뭐 써 놨어……. "
"…… 뭐라고? "
"영우가 자기 이름…… 써 놨어. "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 아내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응하고……. "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다) 그런 중에도 반백 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학교에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흰쌀밥으로 싸 오지 못하게 했고 음식점에서도 흰쌀밥을 파는 것이 금지됐다. 점심시간마다 담임 교사가 교실로 가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다. 나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따끔하게 세 대씩 때렸

다.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는 쌀밥을 싸 오지 않았다.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바랐고 그건 혼분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 아이들의 삼분의 일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보릿고개 때가 되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자식들이었다. 도시락을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춰 제대로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 같이 손바닥 세 대,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손등을 세 대씩 때렸다.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구운 옥수수를 도시락이라며 가져왔다.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 개운리에 사는 김만수였다. 수건도 아닌 책보 속에 책과 공책, 몽당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 왔다.
그건 지난가을에 수확해 처마 밑에 매달아 뒀던 씨옥수수였다.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훔쳐 간 사람이 자식이라 해도 때려죽이려 들 것이다.
내가 우리 반의 혼분식 운동 참여율이 백 퍼센트라고 보고한 그 날,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숫가루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하게 되었다고 교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일주일쯤 뒤에 미국에서 왔다는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학생들에게 다섯 알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로 새로 개량한 옥수수 품종이었다. 심기만 하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달리고 알도 우리 토종 옥수수의 두 배는 되게 굵을 것이라 했다. (중략)
그런데 그날 저녁 만수가 어둑할 무렵 집으로 찾아왔다. 저녁상을 잠시 물려 놓고 밖으로 나오자 만수는 내게 짚으로 싼 뭔가를 두 손으로 쳐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그게 뭐냐?”
“달걀입니다.”
“달걀을 왜?”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낳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달걀은 사 먹으면 된다. 너희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온 거냐.”
“할아버지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됐다,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밀자 만수는 손을 감추며 잽싸게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해서요, 선생님. 장닭이 없으면 병아리를 못 깝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모르고요.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고개를 꾸벅하고는 말했다.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수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짚신보다 약간 더 길쭉한 달걀 꾸러미를 들고 한동안 어둠을 향해 서 있었다.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 보는 진심 어린 촌지였다.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라) 역사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로디지아*발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앙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었다. (중략)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 삼 실링 육 펜스요? “ 옆에 있던 백인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 예, 나리. “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 다음에 사요. “ 여자가 채근했다.
”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 아니에요. 다음에 살래요. “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남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늙은 원주민 상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
” 뭐라구요? “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떡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 뭐가. 도대체 왜 그래? “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냔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
”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
”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나뭇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늠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로디지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옛 이름.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이 국민 다수의 흑인 원주민을 배제하며 정치 권력을 쥐었던 국가.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이해력과 독해력을 평가하고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을 주고 받는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한 후,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그 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들을 도출하여,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5쪽)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6-127쪽)	
성취기준 3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26쪽)	제시문 (나)
성취기준 4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126쪽)	
성취기준 5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130쪽)	제시문 (다)
성취기준 6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8쪽)	
성취기준 7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5쪽)	제시문 (라)
성취기준 8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5쪽)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316-321	제시문 (가)	○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8	268-275	제시문 (나)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8	286-291	제시문 (다)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8	101-108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박완서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6.25 전쟁 중 피란길에서 동생 오목을 버린 언니 수지가 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에게서 선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오목은 수지가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마치 동기간처럼 정을 느끼게 된 수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 수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오목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제시문 (나)는 『문학』(창비, 2018)에 실린 「입동」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며, 학생들이 지문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략 표시는 일부 생략했다. 어린이집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의 슬픔을 그려낸 소설 작품으로, 사고 이

후 어린이집의 평판을 위해 무신경한 선물을 보낸 어린이집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부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성석제의 「투명인간」을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원문을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이 작품은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교사인 '나'가 가난한 농촌 마을의 학생들에게 혼분식 도시락을 싸오도록 시키고 이에 가난한 농가의 '만수'가 씨옥수수를 구워오게 되는데, 이후 미국산 옥수수 종자와 빵을 배급 받게 된 만수가 감사의 선물로 '나'에게 달걀을 선물한다. 이에 부담과 당황을 느끼다가, 순수한 선물에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라)는 『문학』(지학사, 2018)에 실린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의 「로디지아발 기차」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윤문하고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아프리카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품 조각 작품인 사자상을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선물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남편은 조각품의 가격을 흥정하여 싼 값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부인은 원주민의 노동과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1</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2점)
변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낌. (6점)

(나) 이유: 어린이집에서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에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6점)

(다) 이유: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6점)

(라) 이유: 부인이 갖고 싶던 사자상을 선물해주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헐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
</td><td>40</td></tr>
</table>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낌. (6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서론: 제시문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결론: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 가산할 수 있음.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음.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가)의 오목이는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며, 이를 받은 언니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낀다. (나)의 어린이집은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원생들의 집에 선물을 보냈으나, 배려 없는 선물에 부부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한다. (다)의 만수는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고, 선생님은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라)의 남편은 부인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선물을 사줬다. 부인은 처음엔 헐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낀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568자)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세계지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역지사지, 편견, 왜곡된 가치관, 문화공존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역사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로디지아*발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앙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었다. (중략)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 삼 실링 육 펜스요? " 옆에 있던 백인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 예, 나리. "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 다음에 사요. " 여자가 채근했다.
"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 아니에요. 다음에 살래요. "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남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늙은 원주민 상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
" 뭐라구요? "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떡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 뭐가. 도대체 왜 그래? "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냔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
"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
"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나뭇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늠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로디지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옛 이름.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이 국민 다수의 흑인 원주민을 배제하며 정치 권력을 쥐었던 국가.

(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 작물의 주요 소비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의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 재배나 직접 경영을 통해 기호 작물을 싼 값에 산 뒤 값비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많은 이윤을 남긴다. 반면 현지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받는 몫은 매우 적고, 이들 정부도 밀, 옥수수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선진국에서 식량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 얽매여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구매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자들의 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커피, 차, 빵과 채소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사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다. 유기농 생산물을 선택하는 일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견을 표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십장(什長): 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

(아) 우리는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지닌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와 공존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품에서 부인은 가난한 원주민의 조각상을 예술품 자체로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가난하고 급박한 경제적 상황만을 이용하여 헐값에 구입하는 남편의 모습을 비판한다. 이때,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제3세계에 대한 수탈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의 행위가 가진 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가가 평가의 목적임.

또한, 작품 속에서는 부부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묘사되지만, 작품의 도입과 중간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식민지 시대의 백인들이 가난한 흑인 원주민을 대하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세계시민적 태도를 통해 문화 간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5쪽)	제시문 (라)
성취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5쪽)	문제2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59-60쪽.)	제시문 (마)
성취기준 2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6쪽.)	문제 2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지01-01] 세계화와 지역화가 한 장소나 지역의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조사하고, 세계화가 지역화가 공간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77쪽.)	제시문 (바)
성취기준 2	[12세지01-03] 세계의 권역들을 구분하는 데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을 조사하고, 세계의 권역들을 나눈 기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평가한다. (177쪽.)	문제 2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131쪽.)	제시문 (바)
성취기준 2	[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136쪽)	제시문 (아)
성취기준 3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33쪽.)	문제 2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8	101-108	제시문(라)	○
국어	박인수 외	비상교육	2017	236	제시문(마)	X
세계지리	신정엽 외	천재교과서	2018	186-187	제시문(바)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7	145	제시문(바)	○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8	44-46	제시문(사)	○
통합사회	정창우	미래엔	2017	236	제시문(아)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문학』(지학사, 2018)에 실린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의 「로디지아발 기차」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윤문하고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아프리카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품 조각 작품인 사자상을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선물

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남편은 조각품의 가격을 흥정하여 싼 값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부인은 원주민의 노동과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18)에 실린 신경림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전문 인용한 글이다. 이 시에서는 가난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랑 등의 인간 보편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감정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세계지리』(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7)에 실린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에서는 플랜테이션 중심 농업 구조를 통해 선진국들의 이익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고통이 맞물리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장영희의 수필 「나와 남」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저자는 문학 수업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삶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나와 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할 바꾸기, 즉 역지사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에 실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 위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적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윤리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2</td><td>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td><td>40</td></tr>
</table>

1)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 파악: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 (5점);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5점)

②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해 내야 함.(10점)

2)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 파악: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5점);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5점)

②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해 보자면,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됨.(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 (20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도출한 경우	9~15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논리적으로 도출한 경우	16~20점
	②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경우	9~15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	16~20점

	세를 도출했는지 평가 (20점)	시한 경우	

7. 예시 답안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하자면, 먼저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된다. (567자)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문화 제국주의, 문화 상대주의 , 세계화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자) 최근 들어 한류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뻗어 가고 있다. 초기 한류에 대한 반응들은 대부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며 한국을 널리 알림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점점 한류가 심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한류에 종속됨으로써 또 다른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수준의 문화 제국주의는 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 사회의 도래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글로벌 사회를 핑계로 문화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 차이를 우열 관계로 인식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때 해당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뮐러는 문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이해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명권들이 개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 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개인은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멀어져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 도상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는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등을 갖춘 선진국이나 소수 기업에게 유리하여 국가 간, 개인 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추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소수의 특정 문화가 광범위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지적 문화들이 밀려나거나 소멸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2) 이러한 이론이나 주장 간 연관성을 비교 및 유추하여 두 개의 이론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특정한 주장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관계를 위계에 의한 종속관계로 파악하는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이를 수평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간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세계화의 양면성은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모두에게 연관될 수 있는데, 부정적 측면은 문화 획일화를 통한 문화 제국주의와, 긍정적 측면은 문화 다양성 증진을 통한 문화 상대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방향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td><td>제시문(자)</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td><td>제시문(자)</td></tr>
<tr><td>성취기준 2</td><td>[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td><td>제시문(차)</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세계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세사05-01]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td><td>제시문(자)</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세사06-02]세계화와 과학, 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td><td>제시문(차)</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김영순	교학사	2018	96	제시문(자)	○
통합사회	이진석	지학사	2017	221	제시문(자)	○
세계사	이병인	비상	2017	207	제시문(차)	X

5. 문항 해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에 실린 「한류를 문화 제국주의로 볼 수 있을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2017)에 실린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한류의 확산이 문화 제국주의로 다른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정보화와 세계화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서로 다른 문화간 개방과 교류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세계사』(비상, 2017)에 실린 「오늘날의 세계」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세계화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세계화의 결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예측된다. 반면, 세계화는 국가 간 경제적 예속 관계를 강화하고 개인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소수의 강한 지배력을 가진 문화가 국지적 문화들을 위축시켜 문화 획일성을 불러오기도 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3</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① 문화 제국주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위계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②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조성되기 때문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문화 간 공존을 가능케 한다.

2) 제시문 (차)를 토대로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한다.(10점)
</td><td>20</td></tr>
</table>

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세계화를 통해 소수의 특정 문화가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지적 문화가 위축되면서 문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문화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②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세계화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해지며 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서술하였는지 평가 (10점)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 중 하나만 잘 설명했을 경우.	3-6점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7-10점
	② 제시문 (차)를 토대로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 (10)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 또는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하나만 잘 설명했을 경우.	3-6점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 또는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을 경우	7-10점

7. 예시 답안

(자)에 따르면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위계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조성되기 때문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문화 간 공존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에 따르면 세계화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해지며 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를 통해 소수의 특정 문화가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지적 문화가 위축되면서 문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문화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는 두 현상과 연관성을 갖는다. (420자)

문항카드 7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Ⅰ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연결, 체계, 연쇄, 정통, 평가, 전문가, 전달 물질, 매개, 전달, 재배치, 화음, 공간, 자연스러움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보배로운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흩어져 없어지고 만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 저 책을 읽더라도, 저마다 따로 놀아 하나의 체계로 꿰지 않으면 책에서 얻은 지식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갈래를 나누고 체계를 세워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채워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기만 해서는 도무지 독서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마구잡이 독서는 읽지 않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저 읽은 책의 목록만 추가하는 의미 없는 독서에 머물고 만다.
갈래와 체계를 세우는 일을 다산은 색깔별로 구슬 꿰는 일에 견주었다. 먼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분야를 정한다. 그러고 나서 그 분야에서 정평 있고 내 수준에 알맞은 책을 몇 권 골라 단계에 따라 읽어 나간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과 관련하여 다시 다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이 구슬 꿰기 독서 방법이다. 다음은 정약용이 아들 정학유에게 부친 편지의 한 대목이다.
"내가 최근 몇 년 이래 독서에 관해 자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궁구하여* 그 근원 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이룰 수 있다.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곁으로 백 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의 내용도 환하게 꿰뚫을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점을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책을 읽다가 어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꼬리 물기 독서 방법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계속 의미를 파고들어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독서는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져야 한다. 덮어놓고 읽는 대신 계통을 세워 관심의 영역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누적되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어느 한 주제를 따라서 감자 넝쿨 캐듯 한 책을 통해 또 다른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에 흥미가 생기는 구슬 꿰기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전에는 가늠조차 할 수 없던 내용이 친숙해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덮어야 했던 부분에 관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독서가 여기에 이르면 이른바 전문가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궁구하여: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여.

(나)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1,500그램으로 몸무게의 약 2.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한 개의 신경 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이어져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 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분의 1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세포질: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세포막 안의 부분. 생명 현상이 발현되는 살아 있는 부분임.
*연접: 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와 접합하는 부위.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다)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모두들 긴장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벙긋벙긋하는 거야. 알았지?"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합창단 축제 공연은 엇박자 D가 노래를 부른 탓에 엉망이 되고 만다. 음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나'는 공연기획자가 되었고, 엇박자 D는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되었다. ' 나 '와 엇박자 D는 함께 '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 '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 엇박자 D의 부탁으로 ' 나 '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몇몇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음향 점검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라)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곧 공동체의 촌락을 뜻한다.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기에 생활의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이웃 간의 정보, 노동력, 생산품의 교환을 쉽게 해 주었다.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이 형성된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다.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길에서 안길이 뻗어 나가고 또 그 길에서 샛길이 뻗어 나가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는데,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여겼다. 또한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 역시 꺼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길하다: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롭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나타나는 연결의 대상, 유형, 특징,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제시문에 나타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 - 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5-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59페이지)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59페이지)	제시문 (가) (다) (라)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94페이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95 페이지)	제시문 (나)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정민 외	해냄에듀	2017	14-18	제시문 (가)	○(중략)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54-57	제시문 (나)	○(중략)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7	172-176	제시문 (다)	○(중략)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8	134-138	제시문 (라)	○(중략)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연결의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찾아 비교하여 완결성(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글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7)에 실린 정민의 글 「구슬꿰기와 꼬리 물기 독서법」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부친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며,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는 마구잡이 독서가 아니라 색깔별로 구슬을 꿰듯 관심 분야에 따라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독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꼬리 물기 독서 방법은 읽는 사람이 내용을 꿰뚫어 이해하고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 신사고, 2018)에 실린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세포에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분자가 다음 세포에 있는 특유의 수용체 분자와 결합하여 특정한 정보가 일정한 양으로 전달되어 정신 기능을 결정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엇박자 D」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 음치이자 박치였던 엇박자 D가 이후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되어 서로 음이 맞지 않는 목소리들을 절묘하게 배치하여 서로 겹치는 목소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아름다운 화음처럼 어우러지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7)에 실린 전남일의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 전통 마을에서는 집과 집이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길을 따라 자리하여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1</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연결의 '방식'과 '결과'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방식: 읽는 이의 관심에 의해 시작된 독서가 체계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 확산되는 방식. (4점)
결과: 내용에 정통하고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됨. (4점)
(나) 방식: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선별적으로 일정량이 결합되는 방식. (4점)
결과: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전달되고 정신 건강이 유지됨. (4점)
(다) 방식: 서로 다른 노랫소리들이 재배치되어 서로 중첩되는 방식. (4점)
결과: 음과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화음이 됨. (4점)
(라) 방식: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길과 공터와 같은 사이 공간을 매개로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 (4점)
결과: 마을 구성원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td><td>40</td></tr>
</table>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방식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에는 독서(책), 세포, 소리, 공간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가)에서는 읽는 이의 관심에 의해 시작된 독서가 체계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확산되는 꼬리물기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내용에 정통하고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에서는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선별적으로 일정량이 결합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전달되고 정신 건강이 유지된다. (다)에서는 서로 다른 노랫소리들이 재배치되어 서로 중첩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음과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화음이 만들어진다. (라)에서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길과 공터와 같은 사이 공간을 매개로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결과 마을 구성원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연결의 방식은 연쇄적 체계화, 매개, 리믹스, 자연적인 형성 등이고, 그 연결의 결과로 전문가, 정신 활동, 새로운 화음, 마을 공동체 등이 만들어진다. [570자]

문항카드 8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I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마을, 누리 소통망, 사회 자본, 사회적 신뢰, 상호 의존, 관용, 공존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언급된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에 설명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곧 공동체의 촌락을 뜻한다.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기에 생활의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이웃 간의 정보, 노동력, 생산품의 교환을 쉽게 해 주었다.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이 형성된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다.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길에서 안길이 뻗어 나가고 또 그 길에서 샛길이 뻗어 나가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는데,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여겼다. 또한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 역시 꺼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길하다: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롭다.

(마)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누리 소통망(SNS)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그곳에 방출한다는 것은 그 활동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서적 교류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외에, 누리 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일까?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리 소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일까?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집중하여 생각해 본다면,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사회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과 같은 무형의 자본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이다. 똑같은 물적·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안에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 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 자본이 긍정적 영향, 즉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 자본 연구자들은 누리 소통망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과연 누리 소통망 활동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연구가 있다. 누리 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는 집단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은 크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누리 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즉,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진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면을 더 늘렸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했다는 이야기다.
사회 자본의 이런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 『잡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지게는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작대기에 의지해야 한다. 또 누구든 혼자 부를 쌓거나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지해야 가능하다. 따뜻함은 차가움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다. 기쁨과 즐거움도 슬픔과 괴로움에 의지한다.

(사)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들이 있습니다. 1453년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와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사화(史話): 역사에 관한 이야기.
*모스크: 이슬람교에서 예배하는 건물을 이르는 말.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핵심어를 뽑아냄으로써 통합하여 추론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내부인과 외부인의 신뢰의 측면, 사회 전체의 통합력 측면을 나눠 도출할 수 있고, 상호의존적 관계과 포용적 관용을 연계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존과 관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쓰다.(61쪽)</td><td>제시문 (라)</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95쪽)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95쪽)</td><td>제시문 (마)</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125쪽)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130쪽)</td><td>제시문 (사)</td></tr>
</table>
2.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39쪽)</td><td>제시문 (바)</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2-01] 동양과 한국의 연원적 윤리사상들을 탐구하고, 이를 인간의 행복 및 사회적 질서와 관련시켜 토론할 수 있다.(56쪽)</td><td>제시문 (바)</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7	172-173	제시문(라)	0 (중략)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134-138	제시문(마)	0 (중략)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22	제시문(바)	0 (중략)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18	56	제시문(바)	0 (중략)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8	303-304	제시문(사)	0 (중략)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7)에 실린 전남일의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 전통 마을에서는 집과 집이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길을 따라 자리하여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김윤지의 「누리 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를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현대인이 이용하는 누리 소통망(SNS)이 '사회 자본'과,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누리 소통망이 사회 자본을 늘리는 지의 여부를 논하는 글의 일부인 이 글은 누리 소통망 활동이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하고,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하고, 사회전체적 신뢰나 통합력은 떨어뜨린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불교의 윤리적 접근」 중 「연기(緣起)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불교와 자비의 윤리」 중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하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불교의 '연기설'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연기설은 만물의 존재와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비의 윤리를 제시한다. 제시된 부분은 '연기설'에서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8) 교과서에 실린 신영복의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를 출제 의도에 부합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저자가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느낀 성찰적 사유를 편지글 형식으로 담아낸 수필이다. 특히, 1453년 오스만 튀르크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당시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했던 상황을 제시했다. 저자는 터키의 역사에서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이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관용과 관대함과 공존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2</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파악했을 지를 평가한다.(6점)
① 내부 결속 강화와 집단 외부인에 대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2점)
②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2점)
③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과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2점)

2) 제시문 (라)의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기술했는지 평가한다.(14점)
①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서술했음.(4점)
②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4점)
③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음과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기술했음.(6점)

3)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에서 '공존과 관용'을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갈대의 비유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5점)
②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5점)
③ (바)와 (사)를 통합하여 상호의존성에서 '공존의 자세',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제시하여 서술했음.(10점)

* 단, 글이 '공존과 관용'에 관한 통합적 진술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table>
<tr><td rowspan="4">기술적 측면 (-5점)</td><td rowspan="2">글자 수 위반 (-2점)</td><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r><td>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td><td>중대한 오류</td><td>최대 3점 감점</td></tr>
<tr><td>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td><td>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td><td>최대 5점 감점</td></tr>
</table>

</td><td>40</td></tr>
</table>

	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변별하여 파악하고 서술했는지 평가(6점)	내부 결속 강화와 집단 외부인에 대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	2점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	4점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과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6점
	② (마)의 '마을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도출하여 서술했음(14점)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서술했음.	2~5점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	6~9점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음과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	10~14점
	③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존과 관용'을 도출했음을 평가(20점)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갈대의 비유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	2~3점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	4~7 점
		상호의존성에서 '공존의 자세'만 기술했음.	8~12 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제시하여 서술	13~16 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에서 '공존'을, (마)에서 '관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경우	17~20 점

7. 예시 답안

(마)는 누리 소통망 활동에서 내부 결속 강화로 인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라)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마을 내부의 결속은 강해지는 반면,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는 마을 내부의 유대감은 높아질 수 있으나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은 줄어 '사회적 신뢰'는 하락할 수 있다. (바)는 세상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야만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세 개의 갈대에 대한 비유를 통해 보여준다. (사)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도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따라서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려는 공존과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570자)

문항카드 9

1. 일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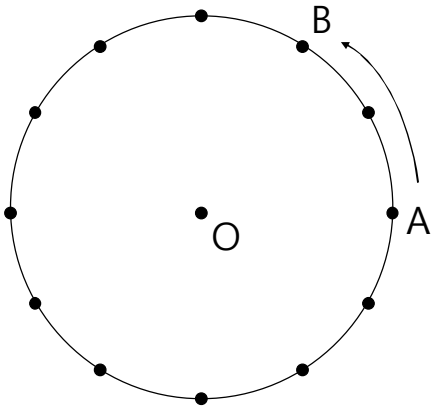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 번호	경영경제계열 I(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 개념 및 용어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 확률변수의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말을 옮기는 게임을 고려하자.

주머니에는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 1개, 숫자 2가 적혀 있는 공 2개, 숫자 6이 적혀 있는 공 1개가 들어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를 12등분하는 12개의 점으로 구성된 게임판이 있다. 게임의 첫 출발점은 A이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뽑은 후 공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을 옮긴다. 예를 들어, 2가 적혀 있는 공을 뽑으면 말을 점 A에서 점 B로 옮긴다. (단, 한 번 뽑은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원의 중심 O를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단,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원의 넓이와 같다.)

참가자는 위의 시행을 연속하여 2회 진행한다.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남아 있는 공을 사용하며, 두 번째 시행의 출발점은 첫 번째 시행의 도착점이다.
게임의 최종 점수는 각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합이다.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출제 의도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해하고 관련된 확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은 중요하다. 특히,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확률 계산에서 이해력이 요구된다. 확률변수의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 & 문제	[확률과 통계] - (2) 확률- ① 확률의 뜻과 활용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 (3) 통계- ①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80-92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82-95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79-90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79-91

5. 문항 해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말을 옮기는 게임을 고려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와 그 확률을 계산하고,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시행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와 그 확률을 계산하고,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계산한다. 두 번의 시행을 마친 후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각 확률과 최종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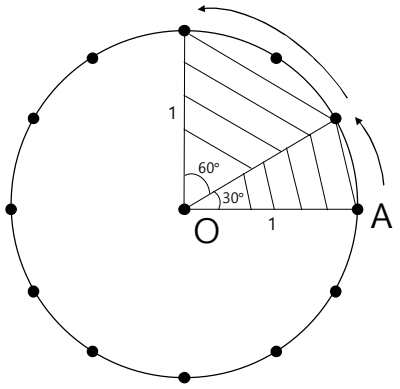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문항	1. 두 번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2. 두 번의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8점 3. 점수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

7. 예시 답안

▶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1번 공, 두 번째 시행에서 2번 공을 뽑는다고 하면, 발생할 확률은 $\frac{1}{4}\times\frac{2}{3}=\frac{1}{6}$이다. 그때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삼각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 즉, 두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각이 30도인 이등변삼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이등변삼각형의 넓이$=\frac{1}{2}\times1\times1\times\sin30^\circ=\frac{1}{4}$
- 정삼각형의 넓이 $=\frac{1}{2}\times1\times1\times\sin60^\circ=\frac{\sqrt{3}}{4}$

▶ 따라서 이때 게임의 점수는 $\frac{1}{4}+\frac{\sqrt{3}}{4}=\frac{1+\sqrt{3}}{4}$이 된다.

▶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모든 경우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확률	최종 점수
1	2	$\frac{1}{4}\times\frac{2}{3}=\frac{1}{6}$	$\frac{1+\sqrt{3}}{4}$
1	6	$\frac{1}{4}\times\frac{1}{3}=\frac{1}{12}$	$\frac{1}{4}+\pi$
2	1	$\frac{1}{2}\times\frac{1}{3}=\frac{1}{6}$	$\frac{1+\sqrt{3}}{4}$
2	2	$\frac{1}{2}\times\frac{1}{3}=\frac{1}{6}$	$\frac{\sqrt{3}}{4}+\frac{\sqrt{3}}{4}=\frac{\sqrt{3}}{2}$
2	6	$\frac{1}{2}\times\frac{1}{3}=\frac{1}{6}$	$\frac{\sqrt{3}}{4}+\pi$
6	1	$\frac{1}{4}\times\frac{1}{3}=\frac{1}{12}$	$\frac{1}{4}+\pi$
6	2	$\frac{1}{4}\times\frac{2}{3}=\frac{1}{6}$	$\frac{\sqrt{3}}{4}+\pi$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text{기댓값} = \frac{1+\sqrt{3}}{4}\times\frac{1}{6}\times 2+\left(\frac{1}{4}+\pi\right)\times\frac{1}{12}\times 2+\frac{\sqrt{3}}{2}\times\frac{1}{6}+\left(\frac{\sqrt{3}}{4}+\pi\right)\times\frac{1}{6}\times 2$$

$$=\frac{1}{8}+\frac{\sqrt{3}}{4}+\frac{\pi}{2}$$

▶ 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시행 결과	최종 점수	발생 확률
(1, 2), (2, 1)	$\frac{1+\sqrt{3}}{4}$	$\frac{1}{6}+\frac{1}{6}=\frac{1}{3}$
(1, 6), (6, 1)	$\frac{1}{4}+\pi$	$\frac{1}{12}+\frac{1}{12}=\frac{1}{6}$
(2, 2)	$\frac{\sqrt{3}}{2}$	$\frac{1}{6}$
(2, 6), (6, 2)	$\frac{\sqrt{3}}{4}+\pi$	$\frac{1}{6}+\frac{1}{6}=\frac{1}{3}$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text{기댓값} = \frac{1+\sqrt{3}}{4}\times\frac{1}{3}+\left(\frac{1}{4}+\pi\right)\times\frac{1}{6}+\frac{\sqrt{3}}{2}\times\frac{1}{6}+\left(\frac{\sqrt{3}}{4}+\pi\right)\times\frac{1}{3}$$

$$=\frac{1}{8}+\frac{\sqrt{3}}{4}+\frac{\pi}{2}$$

문항카드 10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 번호	경영경제계열 II(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 개념 및 용어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 확률변수의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아래와 같은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한다.

-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 있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서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버리고, 나머지 1개는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을 모두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 주머니에 남아 있는 공을 가지고 위의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한 후 게임을 종료한다.
- 게임이 종료된 후 주머니에 들어 있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준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의 차이만큼 선물을 준다.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출제 의도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해하고 관련된 확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은 중요하다. 특히,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확률 계산에서 이해력이 요구된다. 확률변수의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 & 문제	[확률과 통계] - (2) 확률- ① 확률의 뜻과 활용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 (3) 통계- ①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80-92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82-95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79-90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79-91

5. 문항 해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꺼내는 각 경우와 그 확률을 계산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와 확률의 계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여 계산한다. 게임이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물 개수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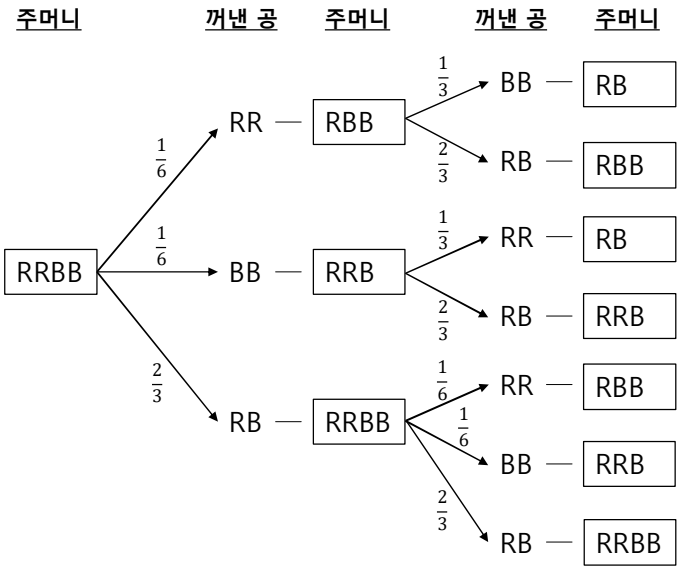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3	첫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6점 두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9점 게임의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그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

7. 예시 답안

▶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R는 빨간 공, B는 파란 공을 나타낸다.

▶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2개(RR)를 뽑을 확률은 $\frac{{}_2C_2 \times {}_2C_0}{{}_4C_2} = \frac{1}{6}$ 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RB)를 뽑을 확률은 $\frac{{}_1C_1 \times {}_2C_1}{{}_3C_2} = \frac{2}{3}$ 이다.

▶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	2	$\frac{1}{6}\times\frac{1}{3}\times 2=\frac{1}{9}$
RB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2}{9}$
RR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2}{9}$
RRBB	4	$\frac{2}{3}\times\frac{2}{3}=\frac{4}{9}$

▶ 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B 또는 RR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1}{6}\times\frac{2}{3}\times 2=\frac{4}{9}$
RB	2	$\frac{1}{6}\times\frac{1}{3}\times 2=\frac{1}{9}$
RRBB	4	$\frac{2}{3}\times\frac{2}{3}=\frac{4}{9}$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text{기댓값}=1\times\frac{4}{9}+2\times\frac{1}{9}+4\times\frac{4}{9}$$
$$=\frac{22}{9}$$